

오징어와 등심

이상국 시인



꽤 오래전 일이다. 아들이 대학 입학을 하고 처음 맞은 봄이었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 어느 날, 입시 공부하느라 고생도 했고 자취생활의 부실한 식사도 한 끼쯤 면하게 해줄 겸, 동네 정육점에서 등심을 구해 정성껏 포장해 직행버스로 부쳤다. 당시 대학 3학년이었던 딸과 방을 얻어 오누이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소고기를 보낸다더니 웬 오징어를 부쳤어요?”

“무슨 소리냐? 오징어라니!”

그 애가 버스터미널에서 박스를 찾아가지고 와 열었는데 물오징어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였다. 나는 장난하는 줄 알고 웃어넘기려 했으나 딸

아이까지 나서서 오징어가 왔다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납작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서 버스 짐칸에 넣었는데 등심이 오징어로 바뀌었다니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아무리 부정해도 오징어가 다시 등심으로 바뀌는 마술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가 추리해낸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아들이 버스터미널에 갔을 때 버스 짐칸에 아이스박스는 하나밖에 없었고 당연히 집에서 보낸 걸로 알고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일테면 그날 속초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서울에 있는 자식이나 친지에게 똑같은 아이스박스에 오징어를 넣어 탁송했던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중 하나를 가져갔고 아들은 남아 있는 박스를 들고 왔던 것이다. 납작하고 작은 아이스박스가 마술 상자였고 버스 짐칸 속에서 등심이 오징어로 바뀌는 마술이 일어났던 것이다. 어쨌든 애들은 등심 대신 오징어 반찬을 해 먹었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물론 그때도 택배는 있었지만 요금도 비쌌고 지금처럼 대중화된 시절도 아니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오징어 대신 등심을 가져간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령 그쪽도 부모가 서울 사는 자식들에게 보내며 “애들아 물 좋은 오징어를

얼음 채워 보냈으니 찾는 데로 회해 먹거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비린내 나는 오징어 대신 시뻘건 소고기가 들어 있지 않은가!

그날 그들 사이에 대강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엄마 오징어 보냈다더니 웬 소고기야? 등심 같은데…!?”

“등심은 무슨 등심… 오징어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럼 버스에서 바뀐 모양이다. 그런데 소고기 보낸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다.”

이렇게 사태의 전말을 정리하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건데 돌려줄 방법도 없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는 박스째 들어온 등심을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내가 사는 속초는 오징어가 유명한 곳이다. 보통 오징어는 여름에 많이 잡히지만 4,5월부터 봄 오징어가 나기 시작한다. 다 자란 오징어는 질긴 껍질을 벗기고 회를 뜨지만 봄 오징어는 작고 연해서 껍질째 회를 뜨거나 아무런 손질도 하지 않고 구워 먹기도 한다. 구운 오징어 먹물의 특별한 맛을 즐기는 것도 이때다. 그래서 그 별미를 아는 사람들은 봄 오징어를 기다린다. 그러나 봄 오징어는 많이 나지 않는 데다 요즘은 난류 때문에 오징어가 동해보다는 서해에서 더 많이 잡힌다고도 한다.

등심 대신 오징어를 먹은 애들은 학업을 마치

고 각기 직장을 잡고 세상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인간의 행불행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고사 중에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변방의 노인에게는 말이 들어와 희비가 교차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오징어가 들어온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한 쪽은 황재한 듯 즐겁게 등심을 먹었을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손해 본 듯 섭섭하게 비린내 나는 오징어를 먹었을 뿐이었다.

사람의 삶이란 게 대부분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사실이고 원칙이다.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버스 짐칸에서 물건의 주인이 바뀌듯 인간 삶의 행로와 화복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연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인생인 것이다.

명절이나 휴가철 혹은 어쩌다 가족이 모여 고기를 먹을 때면 가끔 이 일을 떠올리며 웃고는 한다.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이번 봄에는 오징어를 한 박스 보내보면 어떨까? 🍷

※이상국: 시인. 1946년 강원도 양양 출생. 1976년 <심상>에 ‘겨울 추상화’ 등을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시집으로 <동해별곡> <우리는 읍으로 간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빨을 적시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시선집 <국수가 먹고 싶다> 등 출간. 백석문학상, 민족예술상, 정지용문학상, 박계삼문학상, 강원문화예술상, 현대불교문학상 등 수상.

※본문의 녹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